

창업과 평생학습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여우는 고슴도치를 잡아먹을 생각으로 약삭빠르게 상황을 예측한다. 제 판에는 머리를 굴려 복잡한 전략을 세워서 고슴도치 굴을 서성거리며 때를 기다린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 굴 밖으로 어기적어기적 걸어와 기다리던 여우와 맞닥뜨린다. 여우가 '이 때다' 싶어 고슴도치를 덮치면 쪼박싸게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버린다. 결국 여우는 고슴도치의 놀림감이 되어 달아나게 된다.

거대한 기업이 여우라면, 위대한 기업은 고슴도치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원저: Good to Great)의 저자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Jim Collins)가 선을 딱 그어 기업을 구분하는 상징이자 은유다.

그는 수십년 동안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위대한 기업은 좋은 것, 거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좋고 거대한 기

업들도 물론 많지만 그런 기업들은 화려했다가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시류에 민감하게 자만심을 보이다가 시장의 냉정함에서 밀려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은 단순하리만치 일관성을 보이는 고슴도치형 기업이다. 위대한 기업은 여우의 약삭빠름보다는 고슴도치의 무뎠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고슴도치형 리더십은 단순함과 일관성을 말한다. 단순함은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를 하나의 사업개념과 체계로 단순화할 수 있는 통찰을 의미한다. 일관성은 창업에서 수성까지 인재를 중시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역경을 딛고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고슴도치는 부단한 자기노력과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연상시킨다. 여우처럼 외부에서 빼앗아오기보다는 내부에서 가치를 창출한다.

단순하다고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다. 부산을 떨지 않지만 움직일 때를 안다. 윈 포인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 창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사회를 지나 다가온 지식경제와 창조사회는 통찰과 혁신으로 업(業)을 창조하는 창업자의 사회

다. 거대한 기업이 산업화 사회의 표상이었다면 이제는 창조기업이 시장을 이끈다.

사람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은 바로 창조성이다. 문제는 이러한 타고난 창조성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샘을 평생시에 잘 관리하고 퍼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평생학습이다. 짐 콜린스의 첫 마디인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명언은 고슴도치처럼 평생 동안 학습하라는 말이다. 그럴 때 창조성의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

요즘은 창조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정보통신시장의 고슴도치형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거대한 정보통신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창조기업을 말하고 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위대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그 길은 통찰과 혁신을 가진 창업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은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무진한 정보 시장이다. 누가 새로운 규율과 표준을 만드느냐의 경쟁이다. 이러한 때 잘 만들어진 안내서가 있다면 가는 길이 훨씬 자신 있을 것이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시민에게 붙은 빈대는 누구인가



김 현 정
(정책사회부)

필자는 웬만해선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 학창시절에 겪은 억울한 경험(?) 때문이다. 분명 전날 밤새서 숙제를 했는데 가방에 수학책이 보이지 않았다. 과제 검사 시간에 '숙제를 했는데 안 가져왔다'고 털어놓았다. 선생은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3마리가 있다"며 "이 말이 믿겨지나"고 물었다. 필자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선생은 "지금 내가 한 말이 이처럼 허황되다"며 매타작을 했다. 이때의 일이 가슴에 사무쳐 그 후론 집에 뭘 놓고 오거나, 어디에 뭘 두고 오는 일이 없어졌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빈대 제로 도시 프로젝트 전문가 간담회'에서 빈대 대

처와 관련해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 왜 선생이 봐주지 않고 가차없이 매질을 했는지 알게 됐다. 선생은 '말은 뚫고, 결과로 증명하라'는 깨달음을 준 것이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시장에서 열린 '빈대 제로 도시 프로젝트 전문가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지난 10월 24일로 기억된다. 서울시 전 부서에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국내 언론에 빈대가 출몰했다는 기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직전이었다"며 "외신 기사를 보면서 '(빈대가) 한번 퍼지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방법이 없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다. 그래서 매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던 게 기억이 난다"고 했다.

납득이 되지 않았다. 오 시장이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했으면, 서울에서 빈대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지난 8일 오픈한 '서울시 빈대발생 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총 18건에 달한다. 시가 빈대 현황을 '유일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만 이 정도이니, 여기에 각 자치구 보건소와 다산콜센터 등에 접수된 것까지 합치면 실제 신고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는데 빈대가 두려워 벌벌 떨며 지하철을 타야 하는 서울 시민들이 딱하고 안됐다. 시는 빈대가 서식할 수 있는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교체한다고 했다. 이 말 또한 믿기 어렵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천의자를 전부 스테인리스로 교체한다고 했던 시가 아니던가. 빈대부터 쥐까지 지하철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데 서울시는 공사 노조와 안전인력 감축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시민에게 붙은 빈대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음 10월 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해가 지면 잠을 자듯 해가 뜨면 일을 해야. **48년생** 기회를 놓쳐서 때늦은 단식이 절로 난다. **60년생** 집이 흠집투성이거나 내 집이라 기쁘다. **72년생** 말을 예의 바르게. **84년생** 늦가을의 경치가 더욱 아름다우니 힘내자.



37년생 지나친 자존감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49년생** 새로운 계획은 많은 것을 가져온다. **61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여행을 떠나도 무방. **73년생** 어차피 할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85년생** 타협이 해결책이 아니겠지 마라.



38년생 결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50년생** 자신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어 보람 있다. **62년생**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망신 수가 있으니 자중. **74년생** 이리저리 따지다 보면 결국 원정. **86년생** 여행을 금하고 집 안 청소를 하자.



39년생 나무의 가지가 커지면 반드시 부러지니 잠시 물러서 보라. **51년생** 악기를 배워보자. **63년생**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다. **75년생** 작게 주고 크게 얻음. **87년생** 가리기보다는 옛 생각을 하여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40년생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학문에 몰두. **52년생** 공이 헛수고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기다려보라. **64년생** 마무리를 끝을 잘해야. **76년생** 불이나 다 가까운 곳의 물이 필요함. **88년생** 청춘남자가 죽었으나 한평생재물은 넉넉.



41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방길을 가니 비추는 사람이 없다. **53년생** 자신의 천직에 보람을 갖도록 해야. **65년생** 투자나 매매는 반반이다. **77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행운이 있다. **89년생** 아침부터 드라마틱 하게 운수가 열린다.



42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 **54년생** 자녀가 나의 유산을 기대하고 백수건달로 놀지 말아야. **66년생** 소통이 너무 잘되도록 이우기가 어렵다. **78년생**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90년생** 출사기를 반복하니 결국은 바보스러운 선택이었다.



43년생 베품에 고집을 부리면 가족도 외면하는데. **55년생** 혼자 하거나 어렵고 남과 하거나 의견이 충돌되고. **67년생** 무엇을 해도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바꿔보자. **79년생** 계획 없는 이동은 자제를. **91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44년생 수치가 생겨도 화내지 말고 생각하라. **56년생** 더도 말고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68년생** 이사를 서둘러서 후회가 막음. **80년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92년생** 투자의 길도 여러 갈래니 급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45년생 신념을 가지면 귀신도 나를 피해간다. **57년생** 핑크색이 행운을 주니 스카프라도 해보길. **69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81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발걸음 가볍게 새 출발. **93년생** 자금이 당장은 힘들어도 차근차근 풀어가자.



46년생 모임에서 먼저 칭찬하고 이해할 것. **58년생** 비가 오니 밖에 나가지 않도록. **70년생** 정도를 지나치면 하지 않으니 못하다. **82년생** 마음만 바쁘고 진즉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94년생**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데 자업자득이다.



47년생 상대가 못마땅해도 너그럽게 넘어가자. **59년생** 조상님들 산소를 보살펴두라. **71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83년생** 문서 운이 활발하니 거래가 순조롭다. **95년생** 전생이 있다는데 전생은 쉽게 기억하거나 인식이 되지 않는다.

김상회의四季

별자리 운세 ②



큰 인물을 잉태할 때 꾸는 태몽에 태양을 품에 안았다거나 훌륭한 인물이나 영웅이 세상을 떠날 때 전조로서 하늘의 별이 흐려지거나 유성이 힘없이 떨어졌다는 소릴 듣는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민간신앙으로 북두칠성 신앙의 첫 번째 발원이 수명장원이며 자손을 점지할 때도 칠성님께 비는 것이다. 서양 별자리에 대한 관측 기록은 바빌로니아 시대 때부터였다고 알려졌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중위도 지역에서 보는 별자리는 사뭇 다를 수 있다. 중국문화 영향권에 있던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관측도를 준용해서 활용하고 있다.

삼황오제 중의 하나인 복희씨가 하늘을 관측했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기술된 것처럼 요순임금 시기에 별자리를 관측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에 기인한 것이라. 별자리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의 운명까지도 가능했다. 한자문화권에서 학문으로 자리매김한 주역과 같은 문자적 예측 장치가 부족했던 서양에서 점성학이나 점성술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해 달의 위치와 목성 화성 등 주요 행성들을 포함한 은하계 별자리의 위치 배열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각 문명권에서는 지구상의 사건을 예언하고자 정교한 체계들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점성학이다. 한때 전 세계인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도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들이 일직선 또는 십자 크로스의 위치에 있을 때 커다란 재앙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서양인들도 별자리를 통한 점성술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타로점이 엄청나게 인기라는 것이다. 서양적 점성술이 중국적 점성술과는 결이 다르지만 하늘의 별들이 인간 생활에 영향이 지대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0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1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2	6	9		
	6				4	3
9	5					
			3			8
4		5		1		7
5			2			
						9
	9	4			5	
		5		9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스의 알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결함형스도쿠 153문제

결함형스도쿠110 110문제